



어린이를 위한 나눔놀이터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참여형 체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에 많은 어린이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나눔을 배우고 체험해요



1 ZONE

나눔의 개념, 가치를 배우는 나눔의 이해



2 ZONE

재미있는 미로를 통과하며 나눔 유형을 알아보는 나눔 미로



3 ZONE

우리 조상의 생활 속 나눔 지혜를 배우는 전통 속 나눔문화



5 ZONE

나눔을 통해 달라지는 변화를 소개하는 나눔의 힘



6 ZONE

장애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체험관



4 ZONE

나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을 체험하는 나눔 종류



책과 나눔 온도계로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나눔 책방, 나눔 온도계

견학안내

이용 대상 아동·청소년, 일반 시민(개인 및 단체) 이용 시간 월~목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견학시간 회당 약 40분 소요(단체 20명 내외 기준) 비용 무료

위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별관 나눔문화센터 1층 나눔체험관

견학신청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문의 나눔체험관 담당자 02-6262-3034



금재민, '기린과 친구들'

사랑의열매

20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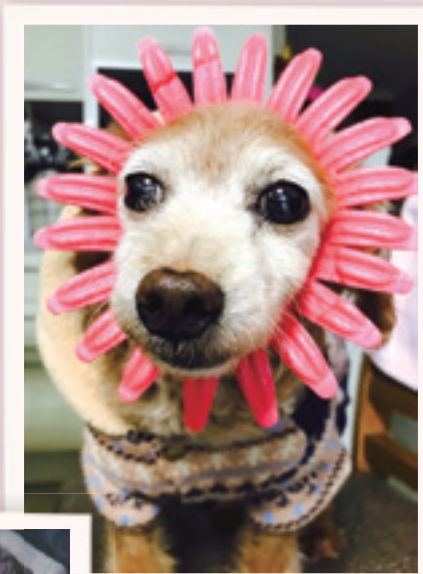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개해주세요



영원한 아기 공주 해피
뭘 해도 예쁜 우리 집 강아지 해피. 내 눈엔 제일 예쁜 해피!
-박지현



산사의 봄
봄바람과 파란 하늘 아래
아직은 덜 핀 매화꽃이
부산 산사의 봄을
재촉합니다.
-최동희



사랑하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전혜영

함께
열매

독자 이벤트

-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나를 맞이해주는 가족, 하루를 마무리한 후 조용히 맞이하는 밤,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 등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개해주세요. 선정된 세 분께는 보내주신 사진을 스마트폰 그림톡으로 만들어 선물로 드립니다. 사랑의열매와 관련 있는 사진을 보내면 그림톡 제작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낼 때에는 용량이 너무 작거나
배경이 복잡한 사진, 잘린 사진은 피해주세요.

참여 방법



1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2

사진을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응모하거나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로
보낸다.



매달 20일까지
보내면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 그림톡 제작에 선정된 사진은 '함께열매' 코너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사랑의열매



○ 금채민, '기린과 친구들'
45.5×53.0cm
캔버스에 오일, 비즈, 샌드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4년 3월 / 통권 20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표지 이야기

다채로운 색으로 마음속 이야기
그려내는 금채민 작가

06 희망2024나눔캠페인

62일간의 나눔 대장정 성황리 폐막

08 나눔 여행

제일 먼저, 가장 화려하게
봄이 오는 창원

14 모두의 나눔

내일을 꿈꾸는
새로운 내 일의 시작

20 내 인생의 한마디

대전 아너 86호
천수당한의원 정금용 원장

24 소중한 진심

장학금·아르바이트비 모아
기부한 경북대학교 유학생
무앗타르·카짐

26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젝트
'Walk And Work Together'

30 찾아가는 회계 교육

비영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회계에서 시작됩니다

32 문화 레터

주말엔 문화생활

34 착한기업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38 다른 그림 찾기

39 전국 열매 이야기

광주·전북·전남·대전·충북·충남

52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4 3월 전국 지회 뉴스

64 나눔 만화

“내 안의 행복한 세상, 보이시나요?”

기린, 코끼리, 얼룩말... 여러 동물 친구들이 꽃과 나무와 어우러져 사선을 사로잡는다. 짙은 색의 밀도감은 거기에 이야기를 더한다. 금채민 작가의 그림 세상이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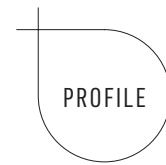


대담한 채색 돋보여

금채민 작가의 그림은 밀도감이 대단하다. 작품에 색이 많으면 산만해 보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금채민 작가는 수많은 색을 사용해 주제를 극대화하는 솜씨가 일품이다. 물감 다루는 데 주저함이 없는 대담함은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난다. <사랑의열매> 3월호 표지 작품 '기린과 친구들'에서도 이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정 좋은 기린 세 마리, 물감에 비즈와 샌드까지 더했다. 회화가 오브제 같아 상상력을 보다 자극한다. 금채민 작가는 “기린과 꽃들이 서로 바라보며 행복한 모습을 비즈의 반짝임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평면적 회화보다 기린 친구들의 행복감이 훨씬 도드라진다. <사랑의열매> 표지 작가로 선정된 기쁨까지 잘 전달되는 작품이라 더 행복하다는 금채민 작가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금채민 작가는 다른 발달장애 작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는 연필을 손에 쥔 순간부터 한번의 멈춤도 없이 그림을 그려왔다.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비장애인 작가도 힘든 전업 작가를 장애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채민이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인 저도 결심했습니다.”

금채민 작가의 어머니 송원숙 씨는 “그림은 딸의 행복 그 자체”라고 말했다.



현) 디스에이블드 소속 작가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 작가

2023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회화과 졸업

2023
JW아트 어워드 최우수상

2023
제2회 장애인특별전시 청와대 춘추관 전시 외 단체전 68회

2022
제1회 령트명 미술대전 대상

2020
파라아트 TOKYO 국제교류전, 일본

2018
자운제 갤러리 개인전 외 6회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매입, 영광

늦은 출발이 무색할 정도로 금채민 작가의 경력은 화려하다. 매년 개인전을 통해 신작을 발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수많은 국내외 단체전과 초대전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중 2023년 JW아트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과 국립현대미술관 정부은행에서 '선인장' 작품을 매입한 일은 작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채민이에게 자연이 최고의 영감인 것 같아요. 주말에 가는 시골집에서 본 마당을 뛰어다니는 메뚜기,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 물레 들어온 길고양이, 이름 모를 들꽃 등을 모두 채민이 작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송원숙 씨는 금채민 작가가 특히 ‘토끼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토끼 동물원을 좋아했고, 금채민 작가가 그린 토끼 그림은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사랑스러운 토끼와 행복한 분홍색”이라며,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느낀다. 금채민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만나는 토끼와 분홍색을 찾아보고, 해석해보는 것도 재미다. 오늘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꿈은 그야말로 당차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그림을 보고 관람객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작을 발표하는 것이다. 수상에 대한 희망도 내비치며 수줍게 웃는 금채민 작가. 작품 속 동물들처럼 그의 미래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응원한다. 🍀

62일간의 나눔 대장정
성황리 폐막

“모두의 기부로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지난 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의열매 희망2024나눔캠페인 폐막식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역대 최고액인 4,835억원을 모금했고,
사랑의 온도탑은 111.2도로 뜨거운 기록을 남겼다. 글 강보라 사진 김기남



(앞줄 왼쪽부터) 참가자들과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성공적 모금을 축하하는 황인식 사무총장, 배우 채시라, 김병준 회장, 가수 박상민 모습



기부 참여에 감사를 전하며
회계 투명성을 약속한 김병준 회장



사랑의열매의 홍보대사 26년 차로
매년 함께하는 홍보대사 배우 채시라



히트곡 '해바라기'의 한 소절을 부르며 성공적인
모금을 축하한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

역대 최고의 나눔온도를 기록한 나눔캠페인

●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역대 최대 모금액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62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나눔캠페인은 목표액인 4,349억 원을 11.2% 상회하는 수치로 나눔온도 111.2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모금으로 평가된다. 이 기록은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최고 모금액이며, 지난 캠페인 대비 391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희망2024나눔캠페인 폐막식에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홍보대사 배우 채시라·가수 박상민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국민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설립 이후 줄곧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채시라 배우는 “기업인들이 도와주시고, 용돈을 모아온 아이들과 생활비를 아낀 시민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111.2도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으로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더 뜨거웠던 기부 행렬

●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신기록은 최대 모금액뿐 아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캠페인 46일 차인 지난 1월 15일 101.2도를 기록하며 지난 캠페인보다 하루 빠르게 100도를 달성한 것이다. 또 이번 캠페인 기간에 모인 4,835억 원 중 개인 기부금은 1,162억 원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캠페인의 개인 기부 금액보다 64억 원 더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기부금도 전년 캠페인 대비 277억 원 더 모여 3,673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신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기부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도 했다. 특히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착한펫’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142마리의 반려동물이 나눔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팬덤 기부 프로그램 ‘착한팬클럽’과 중견·중소기업 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 등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캠페인 성금을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이웃의 안전한 일상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원하며, 교육 자립 역량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

제일 먼저, 가장 화려하게

봄이 오는 창원

산업도시 창원의 봄은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다. 대한민국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시작으로
경화역, 여좌천 등 벚꽃과 봄꽃
명소가 즐비하다. 봄 감성 가득한
창원의 명소들을 둘러보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벚꽃 잔치 일번지

매년 3월 말 4월 초순이면 '진해'라는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인다. 장장 36만 그루의 왕벚나무에서 터지는 봄의 아름다움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벚꽃 잔치의 최고봉이라 일컫는 진해군항제 얘기다. 62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해군항제는 국내 최대 벚꽃 축제다. 진해 벚꽃 축제가 아닌 군항제라고 하는 데는 사연이 있다.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는 진해는 해군의 고장으로, 1952년 4월 총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진해 복원로터리에 세워지고 추모제를 올린 것이 시초가 됐다. 따라서 이 총무공 승전 축하 재현 행사, 추모대제, 해군 군악대 공연 등 군항제 성격을 살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면서 단순 꽃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 진해의 대표적 벚꽃 명소는 해군진해

기지사령부, 해군사관학교, 여좌천, 안민고개, 제황산공원, 장복산공원, 경화역이 있다. 가장 유명한 벚꽃 촬영 스폿은 경화역 철길이다. 벚꽃이 만발한 철길 위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으며, 벚꽃이 질 때면 철길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환상적인 낭만을 느끼게 한다. 경화역에서 세화여고까지 이어지는 약 800m 철로 변은 여좌천보다 한가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어 연인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올해는 3월 22일부터 시작 되는데, 역대 가장 빠른 개막이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외

로망가득한 여좌천

여좌천은 진해여자중학교와 진해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장복산~진해역 사이의 개울 이름이다. 진해의 대표적 벚꽃 명소로 2023~2024년 '한국관광공사 100선'에 선정됐다. 약 1.5km에 걸쳐 하천 일대에 눈부신 벚꽃 터널이 형성된다. 걷기 좋도록 덤 로드를 완비해 꽃비를 맞으며 걷는 것 같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LED로 꾸며놓아 늦은 밤에도 아름답고 탐스러운 벚꽃 세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특히 2002년 드라마 <로망스>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일명 '로망스다리'가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군항제 시작을 알리는 주요 방송사들도 주로 이곳에 야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한다. 진해군항제 기간 중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주변에 카페와 식당, 기념품 판매점 등이 많다. 주변에는 진해역 역사(驛舍),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등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도 많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로 16





주남저수지

철새의 낙원

주남저수지는 동판저수지와 산남저수지, 주남저수지를 통칭하는 보통명사다. 철새의 낙원으로 898헥타르의 면적과 109여 종의 철새가 찾아드는 천혜의 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철새 도래지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창녕 우포늪과 함께 대표적인 배후습지다. 1980년 가창오리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시작으로 천연기념물 16여 종과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10여 종 등 다양한 철새를 직접 볼 수 있다. 가을 역새가 유명하지만, 사계절 모습을 달리하는 주남저수지는 언제 가도 매력적이다. 특히 푸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전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람사르문화관 앞 제방을 따라 주남저수지 탐방로가 용산마을까지 연결되며, 합산마을로 이어지는 제방을 따라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은 주남저수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101번길 26

저도콰이강의 다리

밤바다의 낭만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 포로들이 콰이강에 건설한 철도용 다리와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저도연륙교'로, 의창군 시절에 구산면 육지부와 저도를 연결하기 위해 1987년 설치한 철제 교량이다. 2004년 신교량을 건설할 때 바닥을 강화유리로 마감해 스카이워크로 전환하면서 창원의 인기 명소로 떠올랐다. 2017년 개통한 이후 163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 저도 콰이강의 다리를 찾았다면 스카이워크 개통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느린 우체통도 놓치지 말자. 느린 우체통에 담은 오늘의 추억은 한 달 뒤 또는 1년 뒤 배달되어 짜릿한 감동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87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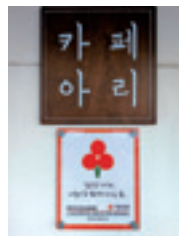
동부마을 팽나무

<아름다운> 촬영지

평범한 시골 마을이 때마침 관광객으로 시끌벅적하다. 모두 이곳의 나무 한 그루를 보러 온 것이다. 2022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일명 '소덕동 팽나무'를 보기 위해서다. 극 전개상 단순 배경이 아닌 거의 주연급으로 출연한 나무다. 현재 창원시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손꼽힌다.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에는 오직 동부마을 팽나무를 보기 위해 주말에만 4,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500년이 넘는 팽나무는 둘레 680cm, 높이 16m로, 어른 네다섯 명이 안아야 할 만큼 크다. 2015년 7월 마을의 보호수로 지정됐으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동부마을은 눈을 확 휘어잡는 경관은 없지만, 녹음이 우거진 나무 아래 서면 포근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드라마에 나온 팽나무와 마을 곳곳에 그려진 고래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02-1





카페 아리 마산소방서점

창원시는 실버 카페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어르신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편안한 분위기와 뛰어난 맛, 저렴한 가격까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커피는 물론이고, 우유와 연유를 섞은 우연 라떼, 패션프루트청과 자몽 시럽의 조화가 절묘한 핫살 에이드, 스타벅스와 협업한 쓱곡물 라떼, 우유로 맛을 낸 유자 라떼까지 카페 아리만의 특별한 메뉴도 많다. 실버 카페라지만 오직 맛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곳이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1층 ☎ 0507-1381-8442



가포옛날영도집

창원은 물론 인근 김해, 부산까지 소문 자자한 장어구이 맛집이다. 이곳 사람들은 몸보신 하면 바로 가포옛날영도집을 떠올릴 정도다. 메뉴는 담백하고 고소한 소금구이와 매콤 달콤한 양념구이 단 두 가지! 다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먹기 편하다. 통통한 장어를 쌈에 싸 먹는 맛이 기막하다. 식사의 마무리는 장어국수나 장어국밥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선한 야채와 쌈, 장어뼈튀김까지 한 상 받고 나면 절로 기력이 솟는다. 사계절 문전성시를 이루는 비결은 3대를 이어온 한결 같은 맛이다. 3월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분점을 오픈한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해안길 37
☎ 055-246-9294



마당있는집

사장님 부부는 창원 토박이다. 양가 부모님은 물론 일가친척, 친구 등도 모두 지척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김치며 장이며 모두 직접 담근다. 상에 오르는 찬 하나 허투루 만든 게 없다. 그야말로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다. 매일 최고의 고기를 선점하기 위해 시장을 누비기에 마당있는집의 고기 품질은 정평이 나 있다. 코로나19 시기 시작한 반찬 판매도 인기 만점! 창원에서 고기 생각이 난다면 최고의 선택이다.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49-7
☎ 055-544-6789

내일을 꿈꾸는 새로운 내일의 시작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족한 직업훈련, 불평등한 대우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클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명하나



2024년 대한민국 여성은

한부모의 **77.7%** 취업 상태

하지만 임시·일용직 비율 33.7%로 고용 안정성은 낮음

64.5%

한부모의 정책 지원 욕구 (1순위)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 지원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 (2021년 기준)

245만 3,000원

2018년 219만 6,000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 가구 소득 416만 9,000원 대비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 비율은 58.8% 수준에 불과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 9,000명

15~54세 기준 여성 794만 3,000명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7% (2023년 기준)

○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영향 (2019년 기준, 중복 응답)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 **87.1%**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29.2%**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신뢰를 잃었다 **28.7%**

일을 그만두었다 **15.3%**

휴가나 휴직이 필요했다 **14.2%**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여성의 고용 현황>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나누리희망제작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지원 사업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모습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에서는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고흥군의 대응 투자와 KT의 후원 그리고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이론과 실습 과정을 거쳐 카페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 참여자들에게는 커피를 만들며 희망을 꿈꾸게 된 것은 물론,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총 10명의 참여자 중 7명이 자격 취득에 성공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MINI INTERVIEW



“ 그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해주신 덕분에 커피 머신과 기자재를 구입해 바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요. ”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장 정귀례

인도 타밀나두주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협동조합원의 자립을 위한 시장 및 금융 접근성 강화

● 불가촉천민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취약층이다. 남성 중심적 인도에서 달리트 여성은 더욱 큰 차별을 당하며 교육과 고용의 기회도 얻기 힘들다. 이에 한국희망재단에서는 인도 최초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생산자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해 자신들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에는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소득 증대 집중 교육을 한 것은 물론, 가공 센터 건축 및 유통 센터 설치를 완료해 참여자들의 교육, 훈련, 가공까지 이어지는 복합 센터로 구성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출자금을 마련하고, 저축 및 대출 지원 시스템을 갖추며 조합원의 성장과 발전, 생산자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했다.



MINI INTERVIEW

한국희망재단 박재출 팀장



지난해 사업 성과를 꼽는다면요? 인도 타밀나두주 여성 유기농업 생산자협동조합연합회를 위한 출자금 제도, 유통 센터 시스템 구축, 가공 센터의 완공입니다. 조합원 2,500명이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활용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더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후 인도 달리트 여성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던 여성들이 친환경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가정 생계의 5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받던 존재에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에게 자립에 대한 꿈을 실현할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희망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인도 달리트의 권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왔고, 그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사랑의열매 해외 지원 사업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생산지 방문 및 공동 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사랑의열매와 한국희망재단
2 지역 협동조합 리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마케팅 교육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MOM'S FESTA 플리마켓

● 상당수의 한부모는 직장 생활 보다 자녀 양육과 유동적인 시간 배분이 가능한 창업을 희망한다. 하지만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더라도 판매 경험과 판로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립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2018년부터 롯데 GRS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한부모가 직접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는 'MOM'S FESTA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물품 판매를 위한 지원금은 물론, 교통비와 아이 양육비를 지원하며 플리마켓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1 본격적인 플리마켓 시작에 앞서 진행된 오프닝 행사 2 MOM'S FESTA 플리마켓 현장 전경 3 참여자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진열한 매대 모습

MOM'S FESTA 플리마켓 참여 후기

“ 창업을 준비하는 제겐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던 일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해보니 앞으로 창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플리마켓을 통해 내 작품의 정체성과 보완점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엔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층 발전한 나를 마주하니 짜릿해요. ”

MINI INTERVIEW

홀트아동복지회 유호정 간사



으로 자신의 자립을 위해 역량을 개발·강화한다는 점이 해당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차별성입니다.

다양한 판로 중 플리마켓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시성과 접촉성 때문입니다. 고객은 직접 상품을 접할 수 있고, 한부모 셀러는 고객과 실시간으로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제품 피드백이나 고객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열매와 롯데 GRS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립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연마해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혼자만의 취미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에게 플리마켓은 판매의 장이자 세상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그런 플리마켓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한부모들은 오늘날 자립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

롯데 GRS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창업을 희망해도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셀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2022년도에는 30명, 2023년도에는 25명이 자신만의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2년간 한부모 셀러의 총매출은 약 1,395만 원으로 수익 창출과도 직결되어 한부모 자립에 직접 지원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부모 셀러가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수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셀러 개인의 역량도 강화하고, 플리마켓 판매 물품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과 비교해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었나요? 기존 지원 사업은 물품 또는 현금 지원으로 대상자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본 사업은 자신의 기술력으로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해 스스로 판로 개척과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 능동적



“ 우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손님께 ‘잘 만들었다’, ‘힘들었겠다’는 말도 듣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 내 힘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아주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나눔과 봉사는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는 특효약입니다”

감초는 탕약의 필수 약재로 독성을 중화시키고, 특유의 단맛으로 쓴맛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정금용 원장은 인생의 감초 역할로 나눔과 봉사를 꼽는다. 나눔과 봉사라는 처방만이 쓰디쓴 인생의 특효약이 된다는 지론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더 많은 나눔에 함께하고 싶다는 정금용 원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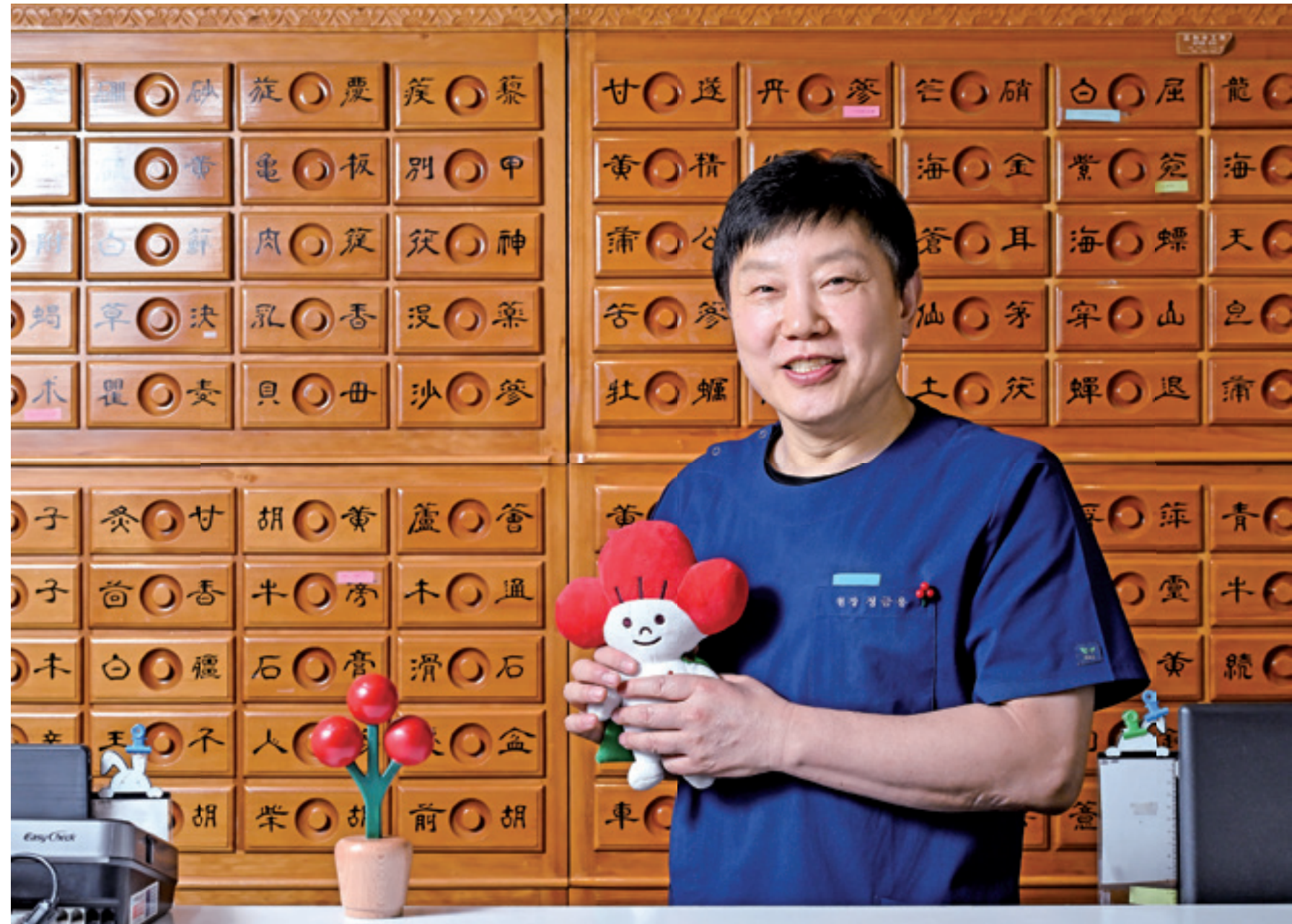
글 강보라 사진 서범세

대전 갈마동에 위치한 천수당한의원은 몸과 마음을 보듬는 의술로 사랑받는 의료 기관이다. 이곳의 대표인 정금용 원장은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어려운 환경까지 살피는 인술로 정평이 났다. 대한한의사회장을 역임하며 대전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이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은 2020년 대전 아너 86호 가입으로 꽃피웠다. 대한한의사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지역 봉사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100여 곳의 한의원을 착한 가게에 가입시켰을 정도로 나눔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보천리(牛步千里)를 마음에 새기며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나눔 천리 길을 걷는다.

장학금 지원으로 함께 그린 내일의 꿈

정금용 원장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너 가입 당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과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행복을 나누겠습니다”라는 나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모교(연무중앙초등학교, 연무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후배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정 원장 역시 어려웠던 학창 시절 다양한 장학금 지원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돼지를 키우셨어요. 양돈 농가는 돼지 사육과 출하 사이클에 따라서 5~6개월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 학비를 제때 내기 곤란한 상황이 많았

대전 아너 86호
천수당한의원 정금용 원장



쥬. 한의대 12학기 중 절반은 대어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 덕에 무사히 졸업해 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경험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 계산 없는 베풀을 받아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나누고 베푸는 행복과 기쁨을 아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와 이웃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금용 원장 역시 그렇게 자랐고, 그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그의 뒤를 따라 성장하리라. 나눔과 베풀이 있는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베풀다

정금용 원장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말한다. 그의 봉사 정신은 업으로 삼는 천수당한의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방문하시는 거니까 예민한 상태이고, 짜증을 내는 분도 많죠. 그럴수록 환자분이 원하는 것을 성심성의껏 들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제 시술로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런 태도 때문에 의술을 뛰어넘는 인술로 칭송받는 것이다. 진료할 때도 환자 입장에서 살피며 증상 너머의 마음까지 보듬는다. 이 같은 역지사지의 태도는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부자 입장에서 장학금 지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기부 리스트에서도 인원과 금액 정도만 확인할 뿐이다.

“과거 대한한의사회에서 회장으로 역임할 당시에도 일종의 행사로 학생들을 불러서 장학금을 지원하며, 식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했죠. 그러다 제가 학생 입장이라면 이런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부만큼은 장학금 지원으로 끝낸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금용 원장은 환자를 진료할 때도 상대방 입장을 살피며 배려한다. 인술의 바탕에는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나눔과 봉사의 선순환을 만드는 아너 가입

선행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던 정금용 원장은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나눔의 세계에 입문했다고 말한다.

“방송에 유명인의 기부 소식이 나오면 꼭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런 걸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인의 기부 소식은 유명인

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김병한 명예회장(대한한의사회 1~4대 회장, 대전 아너 70호) 소식에 아너 가입을 결심했으니까요.”

정금용 원장의 말처럼 주변의 기부 소식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현실감이 느껴진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던 나눔이 지인들의 실천으로 ‘해볼 만한 일’로 생각되는 것이다.

“〈법구경〉의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구절처럼 선한 인연을 따르다 보면 나눔의 그윽한 향기에 물들지 않을까요? 은은한 나눔의 향기가 제 주변에 더 멀리 퍼져나가기 바라봅니다.”

대전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며 전문가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

“장학금 지원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어려운 일이 지원받을 학생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의열매는 지역과 밀착되어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최적의 기관이었습니다.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꼭 한 번쯤 느껴봤으면 하는 감정입니다.”

진정한 부(富)는 나눔으로 완성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길 바란다. 정금용 원장은 부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평생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큼 제대로 썼느냐”라며 이에 따라 부자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진정한 돈의 가치는 쓰임새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어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돈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힘겨울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진정한 돈의 가치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때 생기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행복하다는 그는 이미 부자다. 정금용 원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와 함께 나눔의 길을 걷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아너 가입 소식이 알려지고 주변에서 ‘용기가 가상하다’는 칭찬을 해주곤 합니다. 나의 결심과 용기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일생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는 봉사할 결심, 나누고 베푸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웃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 공간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정금용 원장이 일깨우는 부의 가치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비 모아
기부한 경북대학교 유학생
무앗타르·카짐

“한국의 나눔문화도 배워갑니다”

큰 꿈을 품고 온 한국! 거기에 따뜻한 나눔의 꿈까지 더해졌다. 고국의 이웃까지 생각하게 된 경북대학교 유학생 무앗타르와 카짐 씨다. 글 강은진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대구 사랑의열매 강주현 사무총장, 무앗타르, 카짐, 나눔리더 달구벌죽궁 김병연 대표가 자리를 함께한 기부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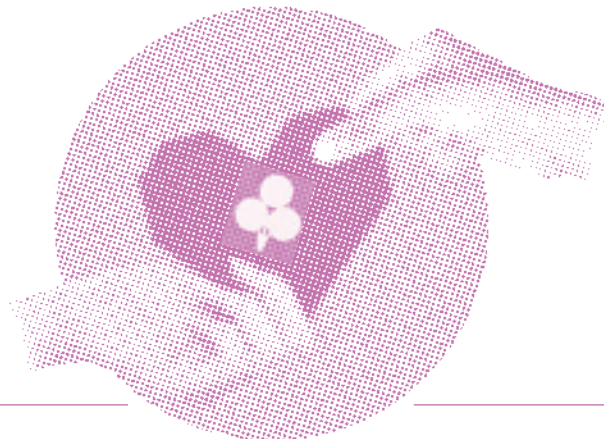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기부한 무앗타르와 카짐. 두 사람은 남매 같은 사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자선에 대해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무앗타르

“이번 나눔을 통해 고국에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배웠습니다.”

-카짐



잔잔한 감동 준 유학생의 기부

희망2024나눔캠페인에는 크고 작은 감동 기부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화제가 된 나눔이 있다면 경북대학교 유학생 무앗타르(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우즈베키스탄)와 카짐(농업건축토목학 박사과정, 나이지리아)일 것이다. 각각 100만 원씩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당부하던 이들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 모아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020년 활쏘기 대회에서 만난 무앗타르와 카짐은 친오누이 같은 사이다. 현재 K양궁 외국인팀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의 기부 뒤에는 대구 나눔리더 108호 달구벌죽궁 김병연 대표와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3호 김기호 아너가 있었다. “죽궁을 배우면서 김병연 선생님과 김기호 할머니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열매도 두 분 덕분에 알게 됐고요. 저희도 선생님과 할머니처럼 좋은 일 하며 살고 싶었어요.” 무앗타르 씨는 김병연 대표와 김기호 아너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고국 위한 기부도 꿈꿔

유학생에게 100만 원은 큰돈이다. 더욱이 힘들게 공부하고 일해 받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비를 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동시에 ‘기부하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앗타르 말처럼 어머니와 선생님 뒤를 잇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제삼세계에서 온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도 특별하고요.”

카짐 씨는 김기호 아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무앗타르와 카짐은 이번 기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나이지리아는 익명 기부가 일반적인 데 반해, 한국은 공개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도록 격려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기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축하와 격려 인사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먼저 나이지리아 대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카짐은 “사랑의열매와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NGO에 대해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했으며, 무앗타르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사랑의열매를 알려주고 싶다”고 마지막 소감을 전했다. 한국 전통 활쏘기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숨기지 않는 유학생 무앗타르와 카짐, 이 두 사람의 앞날이 희망으로 가득 차길 기원해본다. ❀

“자신감 회복이 가장 큰 소득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중합사회복지관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젝트 'Walk And Work Together'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직장에 다니고, 일하던
시절이 까마득하다.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지만,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 그들을
위해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가 나섰다. 글 강은진
사진 이화여자대학교중합사회복지관



정원사가 되기
위한 수업 풍경.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는
여타 사업과
달리 직업군이
다양하다.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이화여자대학교중합사회복지관의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사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중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사업을 홍보했다.



재취업 어려움, 외부 도움 절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사정은 보다 복잡하다. 결혼과 출산·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부터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부모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의 병간호 등 경력이 단절된 이유는 아주 다양하다.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보육 기관 무력화로 돌봄을 위해 많은 여성이 퇴직을 한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일 뿐 아니라, 여성 고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20~30대가 주를 이루는 취업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령이 부담돼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구체적 꿈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로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정보 부족으로 취창업 시장에 아예 진입조차 못 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사회와 단절된 채 가정에서만 생활해왔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워크

앤워크투게더(Walk And Work Together)'는 이들을 위해 맞춤형 직업 능력을 개발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화여자대학교중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취약 계층 여성의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 상권 기반 취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코칭 교육 지원을 받은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직접 코칭해주는 참여자들 간 교육 나눔 모습



맞춤형 자립 지원 돋보여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는 아모레퍼시픽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뷰티풀 라이프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직무의 전문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동적 근로시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 서비스 돌봄 관련 일자리 분야를 특화 직군으로 구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취약 계층 여성 자립 지원을 위한 여타의 복지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현재 취약 계층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80%가량이 서비스 사무 관리 분야에 편중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대다수다. 또 훈련 기간은 1~3개월가량 단기로 진행돼 양질의 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는 취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일대일 개별 전문 상담을 통해 취창업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고, 실천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돼 있다 보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

은지 자신의 욕구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들과 상담을 통해 중장기적 진로 계획을 세워나간다. 참여자는 정해진 분야 안에서 고르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보육 교사, 식물 관리업체 정원사, 보험 상담원, 회계원, 바리스타, 온라인 의류 판매원, 프리랜서 강사, 디저트 공방 베이커, 항공 지원 업무, 미용사 등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의 직업군은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하다. 이는 중도 이탈 감소, 근로 의욕 증진, 양질의 일자리 획득에 큰 효과가 있었다.

취창업 성공, 자신감 회복까지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일대일 개별 전문 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취업 활동과 근로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정보 제공·자원 연계 등도 병행해 갔다. 양육 스트레스 뇌 검사, 자녀 상담 치료, 진로 교육, 생리대·보디용품 후원, 복지관 내 유료 미술교육 연계 및 온라인



워크앤워크투게더 프로젝트의 참여자와 관계자들

직업 박람회 방문한 프로젝트 참여자들



인 창업 교육 참여 등의 지원이 대표적이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 및 돌봄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참여 취약 계층 여성의 70% 이상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또 자기 효능감 및 근로 의욕 향상도 큰 성과로 꼽힌다. 참여자들 역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워크숍 형태로 모임도 지속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취창업 정보와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며 서로 지지와 격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취약 계층 여성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 상권 기반 취창업 지원 프로젝트 워크앤워크투게더 사업은 취창업을 통해 취약 계층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고민하며 직업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사진은 수제 비누 제작 실습.

취창업 성공! 사업 참여자들의 생생 후기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줄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매일 워크넷에 들어갔고 이력서도 넣어봤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 50대 A 씨

“이는 언니들과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아직 판매가 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일이라 너무 설레요. 교육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됐어요!” - 30대 B 씨

“다른 직업교육은 분야가 정해져 선뜻 시작하기 힘들었어요. 10년 이상 아이만 키우면서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지도도 몰랐거든요.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무슨 일을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았어요.” - 40대 C 씨



“비영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회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열매가 소규모 복지 기관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배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 회계 교육을 제공한 것이다.

글 강보라 사진 사랑의열매



- 1 회계사가 찾아가는 회계 교육은 현장 밀착 교육과 전문성으로 인기가 높다.
- 2 행복플러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회계 교육 중인 양연숙 회계사(상단 왼쪽)와 이정선 회계사(상단 오른쪽)



● 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더라도 회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배분 사업의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 영수증 관리, 현금출납부 작성 등 세세한 업무 회계에 혼란을 겪는 것이다. 사랑의열매는 이를 위해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규모 공익법인(총자산 5억 원 미만/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신규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회계·세무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산하의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 여성 공인회계사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회계 교육 사업에 참여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익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공감하며 회계·세무·재무의 자문 및 교육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찾아가는 회계 교육은 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여성 회계사 2인과 사랑의열매 사업 담당자가 3인 1조로 기관을 방문해 기관과 배분 사업 특성을 반영한 눈높이 맞춤 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

“ 청소년을 위한 힐링 공연으로 연주자와 스태프 수당을 지급하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타행 송금 수수료를 발견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은행 계좌 통일과 산출 근거 추가 승인을 안내해주셨습니다. 회계 디테일에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예술기획 예루

“회계 투명성이 배분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정선 회계사



Q __ 비영리 기관의 회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비영리 기관의 회계는 영리기업의 회계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용어 때문에 영리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영리 기관처럼 효과적 전략 아래 효율적인 활동으로 최대의 '공익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익성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투자자'가 아닌 '기부자'이기 때문에 영리 기관보다 더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기관 회계는 기승전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__ 회계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역시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의 봉사 단체 이름이 '투명성지원센터'인 것도 그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 또는 사업이 합당한 목표에 맞게 진행되는지 효과성과 투입 대비 산출이 효과적인지 그 효율성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투명성'입니다.

Q __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든 꼭 궁금해하는 사안이 제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강사나 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죠. 그 부분은 지금 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니 지금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으로 할까요, 사업소득으로 할까요?”라고 묻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__ 배분 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요새는 전자화가 일상이 된 '종이 없는 사회'인데, 현장에 가보면 종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체적 투명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망라하는 개념이므로 회계 처리 및 보고의 효율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면 기관은 사업 활동에 더 집중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MINI INTERVIEW

이번 주엔 뭐 하지 주말엔 문화생활

황금 같은 주말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뮤지컬부터
전시, 책까지 취향껏 고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 글 이선희 사진 세계사, (주)홍컴퍼니,
(주)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 서울미술관

연극



아트(ART)

2022년 공연 당시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거머쥔 연극 <아트(ART)>가 12인의 화려한 캐스팅 라
인업과 함께 돌아온다. 오랜 시간 이어온 세 남자의 우정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와해되고 다시
봉합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블랙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준다. 엄기준, 최재웅, 김
재범, 박은석, 박정복, 김지철까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경력직 배우들이 다시 한번 <아트> 무
대에 오른다. 여기에 연극 무대에는 처음 도전하는 성훈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인 박호
산, 이필모, 진태화, 손유동, 이경욱 등의 배우들이 새롭게 합류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흥
행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2월 13일~5월 12일 | 링크아트센터 벅스홀 | 100분 | R석 7만 원 S석 5만 원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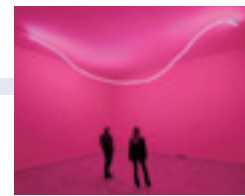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한국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의 첫 산문집 <꿀씨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
면 개정판으로, 제목과 장정을 바꿔 출간했다. 작가로 첫발을 뗀 이듬해인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작가이자 개인으로 통과해온 20여 년 중 인상적
인 순간들이 담겼다. 또한 호원숙 작가가 개정판을 위해 특별히 허락한 미
출간 원고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의 수록으로 이 책의 의미를 더했다.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위로의 문장들과 오래 볼수록 더 소중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박완서 작가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오롯이 느껴진다.

박완서 저, 세계사



전시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전

지난 2월 강릉에 새로운 공공 미술관인 서울미술관이 개관했다. 이
곳은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의 미학적 연결성을 찾아내 우리 미술의
미술사적 가치를 세계 미술계에 알리는 데 비전을 둔다. 개관전으로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주의(spatialism)'를 소개한
다. 1940년대 공간주의를 주창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미술
사에서 독창적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인 폰타나는 빛을 이용한 라이트
아트, 몰입형 미술 등 현대미술의 혁신적 움직임을 조형적으로 실험
한 선구자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12점, 조각 9점과 아시아 미술관 최
초로 폰타나의 네온 공간 설치 작품 6점을 소개해 공간주의를 더욱
본질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전시실 3에서는 <In Dialog: 광인식>전을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함께 배치해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과 세계 미
술의 연결성을 찾아보게 한다.

2월 14일~4월 14일 | 강릉 서울미술관 전시실 1·2 | 하절기(5~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동절기(11~4월) 오전 10시~오후 6시, 휴관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 성인 1만 원

공연



여기, 피화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3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
의 신작' 선정작으로, 새로운 소재에 대한 탐색과 음악적 완성도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17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웅 소설 <박씨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여기, 피화당은 단순한 고
전의 재현에서 벗어나 뮤지컬적 판타지성을 더한 극중극 형식을 빌
림으로써 <박씨전>을 극 중 가은비가 쓰는 이야기 중 하나로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한다. 각 배우들이 <박씨전> 이야기 속 인물로 분해
탈·부채 등을 활용하는 극중극 형식을 띠며, 종이 속 이야기에서 확
장해 잔인한 현실에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전달한다. ♡

2월 7일~4월 14일 | 플러스씨어터 | 90분 | R석 6만6,000원 S석 4만4,000원



선물 같은 나눔... 나눔명문기업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우리 이웃들이 꿈꿀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활기를 더하는 기업이 있다. 이웃들에게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하는 인스파이어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천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펼친 인스파이어 임직원들



1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장소로 평가받고 있는 인스파이어 전경 2 인스파이어는 오픈 이전부터 인천 지역 아동 일시 보호시설을 지원해왔다. 사진은 크리스마스 기념 초청 행사 및 기부금 전달식



2

인천의 새로운 나눔 명가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있다. 화려한 감각과 다채로운 경험으로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대표 천시, 이하 인스파이어). 2024년 3월 5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인스파이어는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3개 타워로 구성된 특급 호텔, 국내 최초의 공연 전문 아레나, 최첨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1년 내내 뜨거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유리 돔 형태의 실내 워터파크, 최대 3만 명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원과 쇼핑·다이닝·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리테일 공간까지 이제껏 볼 수 없던 규모의 고품격 편의 시설과接客 서비스를 선보이며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다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으며 인천의 새로운 나눔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눔명문기업 가입이 대표적이다. 인스파이어는 작년 9월에 인천 나눔명문기업 38호로 이름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랑의열매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다. 인스파이어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 나눔 사업 후원 및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해 인천 지역 저소득 소외 계층의 결식을 해소하고, 따뜻한 명절 나기를 돕기 위해 1년간 총 1억 원 상당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 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인스파이어 천시 사장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웃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계속되는 기부, 지역의 희망

인스파이어의 나눔은 리조트 오픈 이전부터 시작돼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먼저 2020년 리조트 건립 과정 중 인스파이어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경인여대와 산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유니폼 디자인을 의뢰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작품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천 유일의 아동 일시 보호시설 인천보라매아동센터와의 인연도 특별하다. 인스파이어는 2022년부터 2023년 크리스마스까지 해를 이어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아이들과 인솔 교사 등을 리조트로 초대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아이들은 리조트를 둘러보고 산타와의 포토 타임, 시그너처 레스토랑 '셰프스 키친'에서의 점심 식사, 마술과 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미니 콘서트를 관람하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전에 조사해 임직원이 산타 복장을 하고 직접 전달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 밖에 리조트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중구소상공인연합회와 중구 용유동 주민자치회에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스파이어의 노력은 인천 경제에 큰 활기를



1 인천 지역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결식 해소에 기여하는 인스파이어. 사진은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후원금 전달식 2 인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38호로 이름을 올린 인스파이어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3 인스파이어는 봉사 활동, 위기 가정 지원, 장학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앞으로 꾸준히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 ”

-첸시 사장

불어넣고 있기도 하다. 특히 채용 단계에서 산학 협력, 대규모 채용 설명회, 공개 채용 등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적극 나선 결과, 지난 2023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채용 행사에 700여 명의 구직 희망자가 몰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또 9월에는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과 함께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을 공동 개최하고, 인스파이어의 협력사(총 21개 사 참여)를 위한 채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제공 및 인재 확보를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인스파이어는 인천 지역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서 소개한 나눔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스파이어의 나눔은 다양하다. 리조트가 위치한 인천 중구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인천 지역 그룹홈(아동 공동생활 가정) 주거 환경 개선 및 교육 사업, 체험 활동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또 임직원들 역시 인천 을왕리 해변 일대 환경 정화 봉사를 진행하고, 설날을 맞아 지역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식사 도움, 미술 치료, 노래 봉사를 하는 등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인스파이어의 나눔은 멈춤이 없다.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진행되던 올해 1월, 인스파이어는 취약 계층의 장학금 지원과 식품 나눔 지원 등으로 인천 사랑의열매에 6,000만 원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이어갔다. 인스파이어의 첸시 사장은 “인스파이어는 환대, 상호 존중, 협력, 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모히건의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에 따라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한 걸음으로

취약 계층 여성의 자립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편견 어린 시선에 어깨는 움츠러들고, 용기마저 사라져 끝내 꿈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다. 사랑의 열매는 이들이 당당하게 발을 내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곳은 총 다섯곳 모두 찾은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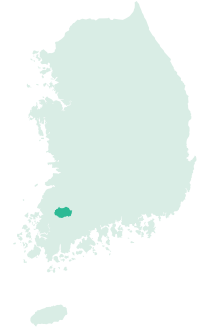


03

월

전국 열매 이야기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맞손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통합 지원 업무 협약식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이웃들을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가 업무 협약에 나섰다.

글 이선희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왼쪽 세 번째부터) 광주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 광주경찰청 김산호
여성청소년과장, 굿네이버스 배준열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함께한 협약식



일상 회복을 위해 구석구석 지원

지난 1월 18일 광주 사랑의열매는 광주경찰청,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통합 지원을 위한 연합 모금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경찰청 김산호 여성청소년과장, 박익경 여성보호계장, 설봉수 성폭력 담당자, 굿네이버스 배준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윤호 팀장, 광주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 외 관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지원 규모 및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민간 사회 공헌 체계로 연결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세 기관이 협약식을 맺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호·지원 활동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함께 연합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된 성금은 범죄 피해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협약식에서 희망퇴움 통합지원단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희망퇴움 통합지원단은 범죄 관련 사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4개 분과(상담·나눔·희망·사례관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광주 사랑의열매와 광주경찰청,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갖춰 지역의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범죄 피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 아래 평안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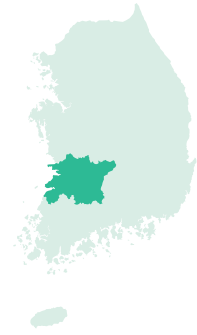
- 광주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

“그동안 공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약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광주경찰청 김산호 여성청소년과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굿네이버스 배준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올해도 전한
따뜻한 마음

익명 기부자들의 조용한 온정

전북 곳곳에서 조용한 기부가 이어졌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들의 온정이 전북의
나눔을 이끄는 귀한 힘이 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사랑의열매

10년째 남원시 대강면행정복지센터에 백미를
놓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 그는 올해 1월에도
백미 100포대를 조용히 기부했다.



4년째 찾아오는 임실군 얼굴 없는 천사

전북 임실군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 역시 4억 2,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임실군 삼계면이 고향인 기부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16억 8,000만 원을 임실군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쾌척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다스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고향인 임실이 이웃 간에 돕고 사는 따뜻한 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부자의 기탁 조건은 익명 보장, 대상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5개월 동안 일정한 날에 입금, 5개월 후 지원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 저소득층 1,206가구에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가 1명이면 30만원, 2명이면 40만원, 3명 이상은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며,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도 일시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종이저금통에 담긴 소중한 진심

지난해 12월 27일 전북 사랑의열매 사무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택배 상자 안에는 종이 저금통 2개와 "아주 작은 보탬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다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적힌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로 보아 기부자가 군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 다른 정보는 전혀 없었다. 보내온 기부금 2만 4,070원은 전북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10년째 남몰래 놓고 가는 백미

매년 남몰래 백미를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다녀갔다. 지난 1월 23일 남원시 대강면행정복지센터에 백미 20kg 100포대를 놓고 갔다. 최근 10년 넘게 매년 이곳에 백미 100포대를 기부해온 그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대강면의 어려운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기부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렵게 사는 지역 주민들을 살펴봄에 선의의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

“고향인 임실이 이웃 간에
돕고 사는 따뜻한 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4년간 총 16억 8,000만 원을 기부한 임실군 얼굴 없는 천사



1 전북 사랑의열매 사무실로 배달된 종이 저금통 2개
2 대강면 이웃들에게 전달된 백미 100포대



시도 모범 사례로
 연이은 호평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초과 달성

지난해 전남 사랑의열매는 나눔리더 220인 탄생을 목표로 캠페인을 추진했다. 7개월간 진행한 캠페인은 그야말로 대성공! 초과 달성은 물론,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모금 사례로 평가받는다. 글이선희 사진전남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상심 전남 보건복지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나눔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들

전남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 사랑의열매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지역의 리더들이 선도하고자 추진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남에서 개인이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하는 나눔리더 220인을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기관장, 의원, 공무원, 기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나눔에 참여하며 캠페인 열기를 더했다. 이어 전남 곳곳에서 나눔리더 가입이 릴레이로 이루어졌다. 덕분에 당초 목표였던 220명을 넘어 300명이 나눔리더로 가입하는 경이적 기록을 달성했다.

우리 동네 이웃을 돕는 든든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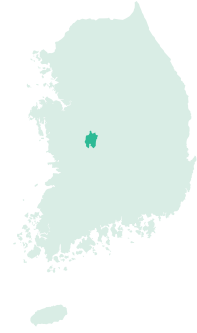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전남 지역의 취약 계층과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전남도청에서 나눔리더 릴레이 모금액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에 지원하는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이상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김병준 회장은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이 시도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나눔리더 300인의 나눔은 올해 취약 가구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위기 가구 발굴·지원과 동절기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힘이 될 예정이다. ❀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각계각층의 나눔리더를 이끌어내 최일선에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범적 사업으로 정말 뜻깊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1 신안군에서 진행한 나눔리더 33명 단체 가입식
2 최운창 전라남도의회사회장 및 회원 13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계룡버스 한울타리봉사회

계룡버스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전 시내를 구석구석 누비며 대전 시민과 72년 세월을 함께해왔다.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계룡버스한울타리봉사회를 통해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전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대전 사랑의열매

지난 1월 계룡버스(주) 임직원이 대전 사랑의열매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했다.



72년간 사랑받아온 시내버스 회사

계룡버스(주)는 1952년에 설립된 대전 지역 최초의 시내버스 회사다. 대전시 시내버스 평가에서는 서비스 및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수, 경영 평가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등 대전 시민들의 압도적 사랑을 받고 있다. 계룡버스 임직원은 이런 사랑에 힘입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꾸준히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계룡버스 임직원이 모은 성금 368만 원을 희망나눔캠페인에 기탁하는 등 대전 사랑의열매와도 인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마음

특히 계룡버스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울타리봉사회는 나눔 활동의 중심이자 기업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2년 9월에 출범한 이후 임직원 105명이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성금 및 물품을 기부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매달 '1천원이웃사랑회'라는 이름으로 한 구좌당 1,000원씩 기부하는 모금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266 구좌에 모인 26만 6,000원으로 대전 사랑의열매를 통해 매달 상서동의 취약 계층 3가구를 후원하고, 매년 11월에는 대덕구청에 라면을 기부한다. 2020년 12월에는 대전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가입식을 진행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백미 지원 사업, 저소득 노인 및 청소년의 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카드 후원, 대덕구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보듬어주고 있다. ♡

1 2020년 대전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한 계룡버스한울타리봉사회
2 매년 11월이 되면 대덕구청에 라면을 전달한다.



“한울타리봉사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소중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계룡버스한울타리봉사회 일동



이웃과 이웃을
이어준다

같이 잇게, 가치 있게 '이웃의 재발견'

지난해 충북 사랑의열매는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과 '이웃의 재발견' 1차 연도 사업을 진행했다. 청주시 내 사각지대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글 이선희 사진 충북 사랑의열매

농촌 지역의 관계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공동체

이웃의 재발견은 정보 부재, 변경된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발굴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생활 거점 장소를 적극 활용했다. 홍보 포스터 부착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편의점·미용실·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이웃이 도움을 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농 복합 도시인 청주의 특성에 따라 도심과 농촌 지역으로 나눠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내 종교 시설을 활용한 공유 주방 프로그램, 지역 내 보건·복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관계적 고립 위기에 놓인 이웃을 돕고자 했다. 원도심 지역에선 반찬 가게와 연계해 결식 우려 1인 가구에 반찬 쿠폰을 전달했다. 반찬 쿠폰을 사용함에 따라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결식 우려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 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원하며,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도록 했다.

농촌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마을복지사의 활동



신중년 인생이모작기회

이장, 통장, 집배원, 검침 매니저 등 업무 특성상 이웃을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가를 인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자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덕분에 이들은 가까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준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주 시민 중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중년층 8명을 마을복지사로 채용했다. 신중년의 새로운 전문적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 인재로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복지사는 농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공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사업 종료 후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나 노인 주간 보호 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택관리사 교육

올해에도 충북 사랑의열매와 청주복지재단은 이웃의 재발견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한다. 청주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한 사례 유형에 따라 지원하고자 주민 공동체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화마 상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행사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천군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충남
사랑의열매는 화재 피해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행사에 참여한 장항어린이집과
서천어린이집 원아들



서천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모금한
320만 원을
기탁하며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대형 화재로 막대한 피해 발생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은 서해의 싱싱한 해산물에 가득해 꼭 둘러봐야 할 관광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 잿빛 폐허로 변했다. 이번 불로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 227개가 모두 전소되는 등 총 257개 점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영업 손실, 복구 비용 등 약 1,0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있던 터라 시장 상인들이 받은 피해는 더욱 컸다. 이에 충남 사랑의열매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화재 피해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신서천발전본부 3,000만 원, 기업은행 3,000만 원 등 기업은 물론 서천군민과 재부천서천향우회, 충남도청 서천향우회 등 어려움에 처한 고향을 돕고자 나선 사람들까지 많은 이의 따뜻한 성금이 모였다.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희망으로

한편, 충남 사랑의열매는 모금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월 2일 서천 문예회관에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 행사를 열었다.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자리인 만큼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성금 전달식이 끝없이 이어지며 점차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이날 현장에서 1시간 넘는 동안 기부금이 적힌 보드판 전달식이 79번이나 진행될 정도로 모금 행사에 참여하는 기부자가 많았던 것. 현장 모금을 진행하는 동안 김기웅 서천군수, 충남 사랑의열매 정희영 사무처장, 이훈 모금팀장 등이 나와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상인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며 힘을 불어넣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모금 기간에 모인 성금을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하루빨리 화마의 상처를 딛고 예전 활기찬 서천특화시장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전국 3323호(경남 156호)

허영호 탄탄나이스(탄탄방수) 대표
"나눔은 행복입니다."



전국 3325호(부산 344호)

강창순 (주)황토식품 대표이사
"마음을 비우고 나니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국 3326호(부산 345호)

최복선 일광수산회집 대표
"나눔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전국 3329호(부산 348호)

박종호 센텀의료재단 이사장
"사회와 주위의 도움으로 성장한 우리에게 이웃을 돕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국 3332호(부산 350호)

신선재 (주)창창아이스티 본부장
"나누면 배가 되고 함께하면 재미가 됩니다."



전국 3340호(대구 238호)

故 조형준 前 경산시청 공무원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사랑한다!"



전국 3342호(경남 157호)

박태환 더큰사랑의원 원장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전국 3348호(경북 163호)

강일규 대서산업(주) 대표이사회장
"평소 성주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3349호(경북 164호)

오원규 나원산업(주) 회장
"경주시가 전국 나눔문화 일번지, 아너 소사이어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나눔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3350호(충북 82호)

박봉규 네오리츠(주) 회장
"나눔은 내 이웃을, 내 국가를, 그리고 세계를 비추는 밝은 등불입니다."



전국 3351호(충북 81호)

주서택 수생식물학습원장·청주 주님의교회 원로목사
"사랑은 흘러가야 살아납니다."



전국 3352호(대구 239호)

박해대 (주)미래테크 대표이사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국 3354호(인천 176호)

익명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기부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관심이 생겨 가입했습니다."



전국 3355호(인천 177호)

신지연 닥터스피부과 인천점점 대표원장
"20년째 장학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3356호(충북 83호)

이종명 (합)신양건설 대표사원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전국 3359호(경남 158호)

임용섭 (주)무릉 대표이사
"함께 사는 사회."



전국 3361호(서울 414호)

박재일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회장



전국 3362호(경북 165호)

박인원 소촌애경원 이사장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웃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경시 발전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3363호(대구 240호)

박성례 성호(주) 대표
"나눔을 실천하고 더 큰 마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국 3364호(대구 241호)

차병기 (주)동양구조 대표
"진심은 진심이 진심을 진심으로."

경기 권혁두 이규윤 (주)다원체어스 대표이사 전북 김성광 IFA전북사업단 대표
세종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

서초행복산악회와 서초행복봉사단, 이웃사랑 성금 기탁



서초행복산악회(회장 김명희)와 서초행복봉사단(단장 장수현)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떡국용 떡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김명희 회장은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의 지역 산악회인 서초행복산악회는 2023년 창단 20주년을 맞이해 서초행복봉사단을 발족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초행복봉사단의 전신은 2010년에 설립한 알DB 자원봉사단으로, 매년 연탄 및 김장 김치 나눔 자원봉사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동참해 왔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복지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에 참여해 다수의 ‘1365 봉사왕’을 배출한 바 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 16년째 값진 기부 참여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12월 한 달간 폐지와 고철 등을 판매하고, 공동 작업장에서 거둔 수입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 221만여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이들의 선행은 1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성금은 2,500만여 원에 달한다. 지난 1월 22일에 열린 전달식에는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사)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과 인천쪽방상담소 엄경아 소장, 김현수 팀장, 주민 대표 이정순, 강청자, 이창규 씨 등이 참석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의 특별한 나눔은 해인교회가 설립한 (사)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인천쪽방상담소에서 시작했다. 2008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이준모 목사의 제안에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 등이 생활비를 아껴 나눔에 동참했고, 이후 기부 참여자가 점점 늘어났다. 이준모 목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몸짱경찰 달력 판매 수익금으로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전국 경찰관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하는 몸짱경찰 달력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달력 판매 수익금 약 1,648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수익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 관계자는 “경찰 달력의 의미에 공감하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블랑두부, 나눔명문기업 가입



글로벌 뷰티 브랜드 (주)블랑두부(대표 이유미)가 1억 1,000만 원을 기탁하며 누적 기부금 3억 3,000여만 원을 달성해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유미 대표는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갤러리 범향, 착한갤러리 기부 협약



갤러리 범향(대표 박성진·김희경)이 개관을 기념하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갤러리 업무 협약을 부산 사랑의열매와 체결했다. 박성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에스제이탱커의 사옥을 이전하며 부산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전시를 지원하기 위해 사옥의 일부를 갤러리로 조성했고, 향후 부산 지역 문화 복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부산본부, 이웃 돕기 성금 전달



NH농협은행 부산본부(본부장 하성국)가 이웃사랑 성금 3억 2,186만 5,920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부산지점을 비롯한 15개 지점이 함께 마련했으며, 부산 16개 구·군을 통해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난방비, 중고교생 신학기 물품 구입비, 고독사 예방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하성국 본부장은 “이웃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대구

(주)카페봄봄,
자립준비청년 후원
성금 기탁



(주)카페봄봄(대표 이승은)이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대구YMCA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대구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대구에서 시작한 카페 프랜차이즈 (주)카페봄봄은 현재 전국 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대구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주)아진피엔피,
대구 16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제지·포장 기업 (주)아진피엔피(회장 정태화)가 대구 1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주)아진피엔피는 달성군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식료품 등 물품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태화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인천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NH농협은행 인천본부(본부장 김선달)가 인천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성금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김선달 본부장은 “취약 계층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션그룹형지(주),
10억 원 상당
의류 나눔



패션그룹형지(주)(회장 최병오)가 10억 원 상당의 의류를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패션그룹형지(주)는 ‘패션으로 행복을 나누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준호 총괄 부회장은 “추운 겨울, 이웃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가평의료재단,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가평의료재단(이사장 김수영)이 광주 1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해 지난 1월 26일 광주 사랑의열매가 인증패를 전달했다. 지난 2022년 광주 134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한 김수영 이사장은 가입식에서 “따뜻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과 소통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챔버싱어즈,
광주 첫 번째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광주챔버싱어즈(단장 신은정)가 광주 1호 나눔리더스클럽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금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추천하는 저소득 가정의 희귀·난치병 환아들의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2004년에 창단한 광주챔버싱어즈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 연중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

연세올데이치과의원,
따뜻한 나눔 동참



연세올데이치과의원(원장 정영·임신목·신상일이) 대전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연세올데이치과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정영 원장은 “대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으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계룡버스(주)
김창중 대표이사,
새해 첫 나눔리더



계룡버스(주) 김창중 대표이사가 대전 지역 운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대전 사랑의열매는 김창중 대표이사의 성금을 대전시 관내 저소득층의 생계비 및 의료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이사는 “2024년 첫 대전 나눔리더로 가입하게 돼 영광이며, 올 한해가 우리 주변 이웃에게 더욱 희망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성금 19억 원
 쾌척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총괄 부사장 김중화)가 이웃사랑 성금 19억 원을 쾌척했다. 울산 사랑의열매는 성금을 저소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발달장애 아동 등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중화 총괄 부사장은 “임직원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OIL 울산공장,
성금 16억 원
 통 큰 나눔



S-OIL(운영총괄 사장 박봉수) 울산공장이 성금 16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울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쌀과 난방유 지원 사업, 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봉수 운영총괄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가수
은가은&팬클럽
응가더러버,
여성 위생용품
 전달



가수 은가은과 팬클럽 응가더러버가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임갑순)와 함께 위생용품 2,500팩(900만 원 상당)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위생용품은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용인시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한다. 가수 은가은과 임갑순 회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삼성어린이집,
착한권리
경기 1호 가입



성남삼성어린이집(원장 이윤정)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자체 제작한 동화책 <반딧불이와 반짝열매>의 판매 수익금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협약하며 착한권리 경기 1호로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삼성어린이집은 도서 판매 정가의 45%를 매월 기부하며, 기부금은 성남시의료원을 통해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주)화인링크,
경기북부 16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광고 디자인 회사 (주)화인링크(대표 심상준)가 경기북부 1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입 성금 1억 원은 파주시 및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상준 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주)성주음향,
1억 원 기탁하며
나눔명문기업
 동참



스피커 제조 및 판매 회사 (주)성주음향(대표 최윤길)이 1억 원을 기탁하며 경기북부 17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최윤길 대표는 “따뜻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강원

8,000가구 대상
설맞이
명절 지원 사업
 실시



강원 사랑의열매가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억 원 규모의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했다. 각 지자체가 추천한 저소득 가정 8,000가구에 지원했으며,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전달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
설 명절 행복박스
 전달



춘천시 나눔봉사단(단장 박순식)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7일, 떡국 떡·한과·국수·만두·김·사골국·홍삼 캔디 등 일곱 가지 물품을 담은 행복박스를 만들어 저소득층 300가구에 전달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명절 연휴 동안 도시락 배달 및 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해 2015년부터 행복박스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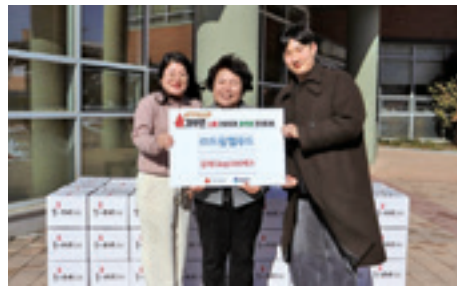
충북

착한가게 장기
기부자 대상,
감사패 전달식
진행



충북 사랑의열매가 장기 기부 중인 착한가게 세 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10년 이상 기부를 이어온 충청BR어린이집(원장 최미영)과 (주)우진건재(대표 김낙우), 광릉불고기(대표 최순일)가 그 주인공이다. 최순일 대표는 “이렇게 감사패를 받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책임감이 생긴다”며 “힘닿는 대로 착한가게를 유지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드림엘푸드,
지역아동센터에
김치 100박스 기탁



(주)드림엘푸드(대표 이기순)가 김장 김치 100박스(2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치는 청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 청주 지역 7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었다. (주)드림엘푸드 이제훈 실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담근 김치를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뽕빠이’ 이상용,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
위로 성금 기탁



방송인 ‘뽕빠이’ 이상용이 지난 1월 22일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상용은 “서천에 가면 꼭 들르던 시장인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이웃을 생각하니 잠이 안 와 달려왔다”며 “우리 고향 이웃이라 우리 집에 불난 것같이 가슴이 탄다.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충남농아인협회
김성완 협회장,
이웃 돕기
나눔 참여



충남농아인협회 김성완 협회장이 충남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충남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로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촉진 사업을 운영한다. 김성완 협회장은 2022년부터 매년 성금을 전달하며 농아인과 충남 도민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풍남동
착한가게 31곳
단체 가입



전주시 풍남동에 위치한 가게 31곳이 착한가게로 단체 가입하며, 전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가 4900호를 돌파했다. 이번 단체 가입으로 풍남동 착한가게는 총 37개소로 늘었다. 양명숙 풍남동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며 나눔을 실천하시는 착한가게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4년 설 명절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원



전북 사랑의열매가 복지 사각지대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전라북도 내 취약계층 2,400세대에 2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북 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다스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주)대창식품,
전남 12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대창식품(대표이사 정현택)이 전남 1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주)대창식품은 평소에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50호 아너 회원인 정현택 대표이사는 “우리 기업이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목포에치과
김성훈 원장,
청소년 장학금
1,000만 원 후원



목포에치과 김성훈 원장이 목포시 관내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김성훈 원장은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 13호 아너 회원인 김 원장은 15년째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무료 진료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

(주)대육케스트,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실천



(주)대육케스트(대표이사 문영욱)가 고령군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영욱 대표이사는 2018년 경북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주)대육케스트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7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문영욱 대표이사는 “더 많은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에코프로,
설 명절맞이
생필품 세트 전달



(주)에코프로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누와 로션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 400개를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주)에코프로는 취약 계층을 위한 명절 지원금 및 아동 교육용 전자 칠판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에코프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경남

탄탄나이스
허영호 대표,
경남 156호
아너 회원 가입



방수제 제조 판매 전문 회사 탄탄나이스(탄탄방수) 허영호 대표가 경남 사랑의열매 156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허영호 대표의 아너 가입 성금은 김해시 및 칠산서부동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모두가 같이 행복한 좋은 세상을 위해 계속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주)현대정밀
길옥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2월 7일 경남 사랑의열매는 경남 1호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금 (주)현대정밀(회장 오춘길) 길옥장학회의 제3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경남 도내 예비 대학생 24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오춘길 회장은 “지역 인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주시농협,
지역 농협 최초
나눔명문기업 가입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이 제주 1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지역 농협의 가입은 전국에서 최초다. 제주시농협은 매년 하나로마트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임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뜨거운 지역 사랑을 보여주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신청
사업 참여 기관
48개소에
배분금 전달



제주 사랑의열매가 2024년 신청 사업에 참여하는 48개 기관에 사업비 5억 9,589만 9,900원을 전달하고, 사업 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기관은 ●지역 아동 대상 체력 증진 ●장애인 대상 친환경 공동체 형성 ●노인 대상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48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

LH세종특별본부,
설 명절
푸드팩 나눔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중호)가 설 명절을 맞이해 푸드팩 나눔 행사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금으로 떡국 키트와 과일 등으로 구성된 푸드팩 100박스를 준비했으며, LH 임직원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100가구를 방문해 푸드팩과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세종시 공공기관,
아름다운 동행
나눔 행사 진행



세종시 아람동에 자리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본부장 이정수)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한국향료기술원(원장 박광열)이 아름다운 동행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4개 기관은 식품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준비해 아람동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13화

이상한 이상해씨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 | | | | |
|------|--------------|------|--------------|
| 중앙회 | 02-6262-3000 | 서울지회 | 02-3144-0101 |
| 부산지회 | 051-790-1400 | 대구지회 | 053-667-0530 |
| 인천지회 | 032-456-3333 | 광주지회 | 062-222-3566 |
| 대전지회 | 042-347-5171 | 울산지회 | 052-270-9000 |
| 경기지회 | 031-220-7900 | 경기북부 | 031-906-4028 |
| 강원지회 | 033-244-1662 | 충북지회 | 043-238-9100 |
| 충남지회 | 041-635-0340 | 전북지회 | 063-282-0606 |
| 전남지회 | 061-902-6800 | 경북지회 | 054-650-2600 |
| 경남지회 | 055-270-6700 | 제주지회 | 064-755-9810 |
| 세종지회 | 044-863-5400 | | |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